

## ABSTRACT SUBMISSION

### AUTHOR

1. City, Country (corresponding author only.)

Seoul, Korea

2. Name

3. Position / Institution

Minjeong Kang

Research Professor, SK Center for Social Entrepreneurship,  
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If there are more than two co-authors, please add more rows and write their names, positions, and institutions.

4. E-mail (corresponding author only.)

mjkang@business.kaist.ac.kr

### ABSTRACT

5. Theme (Choose one of the Themes in the list on the Call for papers.)

Social Economy

6. Title

The meaning and role of collaboration between large company and social enterprises in the growing social economy of Korea

7. Abstract

This thesis suggests that collaboration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ocial enterprises can be a good way to develop social economy more successfully in Korea as large companies have such technologies and resources in the society; and this is also a suggestion that entities and people in Korea look at large companies as partners rather than obstacle to develop social economy. Discourses such as 'Creating Shared Value' and 'Conscious Capitalism' are pervasive today's business world, and there are large companies already in places where they contribute to solving social problems in their own countries and in the global span. SK, one of Korea's leading company and large conglomerate, is committed to develop an ecology of social enterprises and its achievement has been recognized in the sector. In this thesis, how large companies and social

enterprises can collaborat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n ecology of social economy as well as doing their business together are examined, and what are issues and reflections in those processes, by mainly looking at SK's case in Korea.

한국사회의 대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의 폐해와 한계에 대하여, 호혜와 협동의 원칙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대기업은 사회적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존재이거나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자원과 기술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대기업을 반목과 배제의 대상으로 놓기보다 사회적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력해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기업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자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Creating Shared Value', 'Conscious capitalism' 등은 주류 경영학자들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담론이며, (Great Transformation 의 현대적 해석일 수 있다), 실제 대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발견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SK 나 CJ 등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SK 는 기업의 전략적 활동으로서의 공유가치 창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을 2009년부터 실행해 옮기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 직접 설립 혹은 지원, 임팩트 투자를 통한 소셜벤처 지원, Social Progress Credit 을 통한 사회성과 측정방법의 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보상, Social Entrepreneurship MBA 를 통한 사회적 기업가 육성 등과 같이 적극적인 생태계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대기업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SK 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서, 사회적 경제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것인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와 긴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담고자 한다.